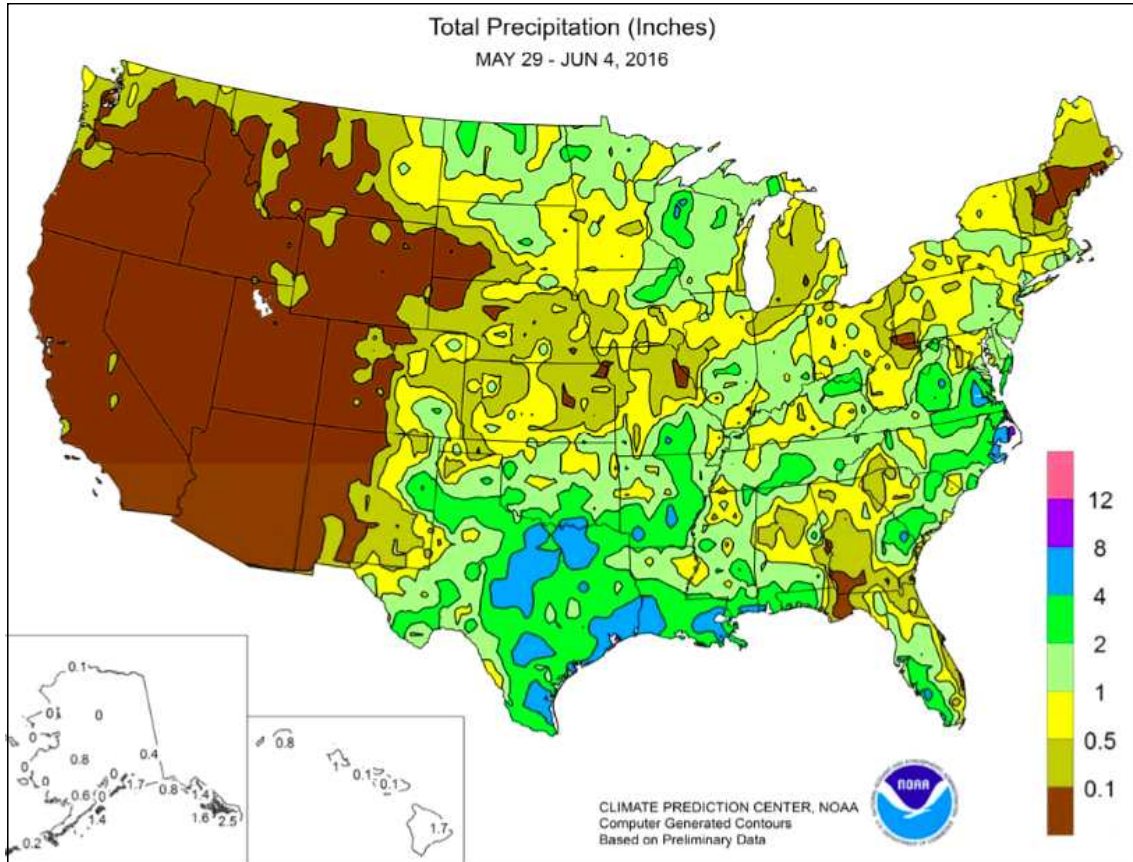


6월 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23)

□ 미국 기후 현황(5/29~6/4)

서부에서는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중부와 동부에서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다. 태평양 연안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0°F 이상 높았고,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뭄이 나타났다. 중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았으며, 다코타 일대를 제외하고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남부 평원 일대에서는 갑작스러운 강한 비로 인해 겨울밀 수확작업과 면화 파종작업이 지연되었다. 남부 평원 일대 평균 강우량은 2~4인치를 기록했고, 주로 Red River 일대에 비가 집중되었다. 걸프 연안 서쪽 일대에서도 비가 내렸고, 텍사스 연안 일대에서는 일부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북동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대서양 연안 중남부 일대에서는 꽤 많은 비가 내렸다. 그밖에도,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맑은 날이 많았고, 미시시피강 상류에서도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동부의 1/3 이상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기온이 5~10°F 정도 높았다.



## □ 농업 현황 요약(5/30~6/5)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고, 특히 북서부의 태평양 연안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9°F 이상 높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부 대평원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 텍사스 남서부 일대에서는 6°F 이상 기온이 낮았다. 강우량은 대체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텍사스에서는 지역에 따라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 □ 세계 기후 현황(5/29~6/4)

■ 유럽: 프랑스와 발칸반도 동부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스칸디나비아와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위치한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유럽 일대의 대기가 불안정했다. 이 때문에 잉글랜드 남동부와 프랑스의 많은 지역, 이탈리아 북부와 독일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겨울작물과 유지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비가 그친 후 발생할 수 있는 병에 의한 이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바쁜 시기를 보냈다. 폴란드와 발칸반도 일대에서도 번개를 동반한 10~60mm 내외의 비가 쏟아졌다. 동부 유럽에서의 침수피해는 서부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지만, 폴란드 남부와 루마니아 동부에서는 강우량이 50~125mm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 최근의 비로 인해, 특히 프랑스에서는 겨울작물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 동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온이 평년에 비해 2~7°C 정도 높았고, 프랑스와 잉글랜드 남동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낮았다.

■ 구소련(서부): 남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겨울작물의 수확 전망은 밝은 편이다. 유라시아 대륙에 자리하고 있는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대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번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다.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10~9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겨울작물의 수확전망을 어렵게 했고, 현재 자라고 있는 작물들의 질병 등에 의한 이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비가 오기는 했지만, 벨라루스, 러시아 북부와 서부 및 우크라이나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이상 높았다.

■ 동아시아: 남부 일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비가 이어졌고, 강우량은 25~100mm 내외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양쯔강 일대에서 재배중인 1기 쌀의 수확일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남부에서는 강우량이 25~50mm 내외, 서부에서는 강우량이 10~25mm 내외를 기록했고, 북부 평원에서도 비가 내렸다. 북부 평원에서는 대체적으로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이 6월 중순에 시작해서 2주 내외에 끝이 나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옥수수 등의 2기 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진다. 북동부 일대의 Liaoning, Jilin, Heilongjiang 등에서는 비가 내렸다. Liaoning에서는 강우량이 매우 적었지만, 최근 30일 이내에 내린 비 덕분에 작물들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덥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습도는 높았다.



■ 호주: 중부와 퀸즐랜드 남부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인해서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다소 늦춰지기도 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빅토리아 동부 등에서도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려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밀, 보리, 카놀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빅토리아 서부, 남호주, 호주 서부 일대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작물들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다.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이 10~20°C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서는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토양 수분 함유량은 적절한 편이다. Buenos Aires 남부에서는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북부 일대와 Cordoba 북부 등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의 지난 한 주간 기온은 평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낮 최고기온은 20°C 미만에 머물렀다. 북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낮았다. 낮 최고기온은 20°C 초반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6월 2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83%, 36%이며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의 96%, 52%에 비해서는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북동부 내륙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Sao Paulo를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북부 나머지 지역과 Mato Grosso, Minas Gerais 동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농작업은 다소 지연되었지만, 2기 옥수수 재배에 적절한 수준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비로 기온은 평년에 비해 낮아졌는데, 밤 동안 기온이 5°C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작물의 성장속도도 다소 늦춰졌다. Mato Grosso 북부와 Bahia 동부, Piaui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도 평년에 비해 5°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5°C까지 올랐다.